**혈약(언약)에 대한 이해 / 존 물린디**



할례의 혈약 : 존 물린디, "깨어나라" 에서(p281~340) 요약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여행할 때,

어느 왕국을 지나가야 했는데, 그 왕이 허락하지 않아 지나갈 수가 없었다,

리빙스턴은 궁리 끝에 혈약을 맺자고 하였다,

왕이 그를 만나서, 네가 나에게 줄 것이 무엇이냐?고 묻기에 머뭇거리고 있는데,

리빙스턴이 가지고 있던 염소를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 염소는 리빙스턴이 위가 나뻐서 염소의 젖을 먹을려고 데리고 다닌 것인데,

생명의 밥줄과 같은 그 염소를 달라기에, 하는 수 없이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의 투창을 주더랍니다.

그리고 맹약을 맺은 후에, 리빙스턴이 나왔는데,

그 후에 가는 곳마다, 아프리카 부족들이 그 투창을 보고 경의를 표하며,

친절하게 대하며, 필요한 것을 갖다 주더랍니다.

이것은 그 왕과 다른 부족들간의 맺은 혈약의 덕분이었습니다.

창1508. 이에 그가 여쭈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것을 물려받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이까?

창1509.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니라, 내게 삼년 된 어린 암소와, 삼년 된 암염소와, 삼년 된 숫양과,멧비둘기와 어린 비둘기를 가져오라.

창1510. 이에 그가 그분께 이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가운데로 나누고, 각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으니라, 그러나 새들은 그가 나누지 않으니라.

창1511. 그리고 새들이 시체들 위에 내려오면, 아브람이 그것들을 몰아내니라.

창1512. 그리고 해가 지고 있을 때에, 깊은 잠이 아브람 위에 떨어지니라. 그런데 보라, 대단한 어두움의 공포가 아브람 위에 떨어지니라.

창1513. 그리고 그분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니라, 네 씨가 자기들의 것이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며, 또 그들을 섬기는 것을 분명히 알라. 그리고 저들이 그들을 사백년간 괴롭히느니라.

창1514.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들이 대단한 물질을 가지고 나오느니라.

창1515. 그리고 너는 평온한 가운데 네 조상들에게로 가느니라, 너는 꽤 나이 들어 매장되느니라.

창1516. 그러나 사대(四代)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오느니라. 이는 아모리인들의 무도한 불법(비틀림)이 아직 가득차지 않음이라.

창1517.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니라 곧, 해가 져서 때가 어두웠을 때에, 보라, 그들 조각들 사이로 지나간 연기나는 화로(타누르:화로,난로,솥)와 불타오르는 횃불(라피드: 횃불,등불, 불꽃,홰,번개,봉화)을.

창1518.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혈약(베리트:고기에서 유래,고기 조각들 사이로 지나감으로 맺는 언약,계약)을 맺으시니라, 이르시되, 네 씨에게 내가 이 땅을 곧, 애굽의 강으로부터 대단한 강 유프라테스까지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은 그 동물들이 혈약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창조주이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친히 혈약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혈약에 기초한 사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혈약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결속시키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너의 전투가 나의 전투가 될 것이다, 또한 너희 대적들이 나의 대적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결속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네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혈약은 완전한 상호교류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결속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을 맺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었습니다.

◇계약과 혈약- 혈약은 가장 높은 수준의 약속

계약은 상대방이 계약을 깨면, 나도 그 계약에서 자유케 되는 구속력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혈약은

한번 맺으면 깰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거의 자손 대대로 영원성이 있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 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 혈약관계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대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관례입니다.

◇혈약은 창조 이래로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고유의 역사와 언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거의 모든 인물들 즉,

아담, 노아, 모세, 아브라함, 야곱 등과 언약을 세우셨고,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의 가문과, 교회와도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혈약 ;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 역시 내 것이다.

혈약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합니다.

마치 결혼과 같이 언약관계는 쌍방이 하나가 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능력은

상대 계약자인 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유익을 위해 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저의 유익을 위해 당신 자신을 내려 놓으십시요,

그리고 제가 그랬듯이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아프리카 혈약 의식의 예**; 언약을 세우는 혈약의 8단계 과정

1. 수년을 함께 지낸다-

함께 지내면서,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고 재고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며,

서로를 이해하며 최종안을 결정한다.

2. 혈약의 대표자들을 선정한다. –

이때 세마리의 짐승과 두마리의 새를 선정한다.

황소나 숫양, 염소, 여러 종류의 새들이 사용되었는데,

배를 갈라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땅에 쏟는 식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전투에 참여하면 저도 그 전쟁터로

달려가서 당신 곁에 서겠습니다.

이것은 맹세입니다!

당신의 적들이 나의 적들이 될 것이고, 당신의 채무는 저의 채무입니다.

또한 당신의 가족이 저의 가족입니다. 혹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볼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보호받을 것입니다.

저는 결코 당신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렘3418. 그리고 내 혈약을 범해 왔던 사람들을①, 그들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부분들 사이로 지났을 때에, 그들이 내 앞에서 맺었던 혈약의 말씀들을 이행치 않해 왔던 사람들을②,

3. 언약을 맺을 넓은 공간을 마련한다-

쌍방 모두가 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절반으로 잘라진 짐승을 마주 놓고, 그 사이로 피가 흐르게 한다.

쌍방의 어른들이 그 모든 권위를 상징하는 겉옷을 쌍방이 교환하고(모든 권위의 교환),

칼을 차는 혁대와 활을 차는 어깨 혁대를 풀어, 서로 교환한다.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장면

삼상1803. 그때에 요나단과 다윗이 혈약을 맺었으니, 이는 그가 저를 그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하였음이라.

삼상1804. 그리고 요나단이 그가 입었던 관복을 벗어,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으며, 그의 갑옷들을 심지어 그의 검까지 또 그의 활까지, 또 그의 혁대까지 주니라.

그리고 쌍방의 대표가 "죽음의 걸음"을 반쪽 짐승들 사이로 피를 따라 걸어서,

만약 이 언약을 깨는 순간에 자기들의 믿는 신에 의해 자기가 갈라진 짐승처럼

갈라지기를 원한다고 선포한다.

예수님은 갈보리의 넓은 장소를 택하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을 대표하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표하신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분은 제사장이셨으며, 쌍방의 대표자이셨다.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주어졌다.

그분의 것은 우리 것이다. 그분의 이름도 우리 것이다.

가서, 내 이름으로 그것을 취하라.

아버지께 속한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의 것은 또한 내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네게 준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지 않느냐?

혈약관계-

그것이 믿음이다. 그 혈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십자가에서 초자연적인 교환(devine exchange)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것이 믿음이다.

성경은 혈약의 책이다.

우리는 혈약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Giving all, receiving all

4. 그 다음에 모든 합의 내용을 선포하고 동의한다.

5.혈약을 인치는 작업 –

대표가 자기의 손목을 베어, 그 손목의 피를 서로 맞대고, 피를 섞는다.

6.혈약의 이름을 교환한다.

7. 혈약의 식사-

포도주와 떡을 쪼개어 서로의 몸을 준다.

"제가 이것을 드리니, 이제 당신의 가족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저주를 부르는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저의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땅의 소출이 없으며,

여자들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할 것입니다"

8. 겉옷의 교환: 겉옷은 그 사람이 가진 권위를 상징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권위를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권위도 제게 주십시오"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엘리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권위를 위임한다, 엘리사, 너는 지금 내가 가졌던 권위를 넘겨 받았다"

Ω마2818. 이에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이르시되, 모든 권능(위임받은 권능, 엑수시아: 능력, 특권, 힘, 재능, 지배, 영향력)이 하늘에서와 땅에서 내게 주어졌느니라

마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의 이름의 권위(오노마:이름,권위)와 아들의 이름의 권위와 성령의 이름의 권위로 그들에게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주면서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면서②,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마데튜오:(자동사)학생이 되다,(타동사)제자를 만들다,학자로 등록하다, 교훈하다, 가르치다, 제자가 되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다, 이제 네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바로 혈약 때문입니다.

혈약이란 삶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내 겉옷, 나의 권세를 너에게 주마, 이제 너의 것을 나에게 다오"

"그런데 왜 나는 주님이 주신 권세 가운데에 있지 못할까?

나 자신이나 자녀들 혹은 내가 처한 상황과 씨름할 때에

왜 그런 권세가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사역, 나의 재정,

이 모두를 어떻게든 나의 힘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겉옷을 교환하는 대신, 여전히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언약 위에 섭니다. 그 언약의 규정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나는 주님의 것을 받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단계에 이를 때,

우리는 "제 삶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이 가지신 권위를 받기 원한다.

그러나 우리의 것을 내어놓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고 나의 것을 내려 놓으면, 놓을수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제 제 삶은 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제 삶은 당신께 속했습니다.

이제 저 스스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 권리를 당신께 드립니다.

일이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권리를 이제 당신의 권위와 교환하기 원합니다. "

9.무기의 교환

가문을 대표하는 가장들은 또한 무기 달린 허리띠를 교환하기도 하였습니다.

무기 달린 허리띠는

그 사람의 능력을 포함해서 전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전투를 치르더라도, 이제 그 전투는 나의 전투입니다.

당신의 적 또한 이제 저의 적입니다. 피를 흘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저는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당신은 전쟁터에서 결코 혼자 서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역시 이런 언약관계에 있었습니다.

삼상22:8.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창1217.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 때문에,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역병들에 걸리게 하니라.

"네가 싸우는 모든 전투는 나의 전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무기로 분노를 사용합니다,

누군가는 자기연민이나 자기보호를 무기로 삼습니다,

또 돈이나 자신의 위치를 무기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모든 무기를 네게 주었다, 이제 네가 갖고 있던 무기들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

네 것들은 나에게 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 놓아라, 너의 싸움이 아니다,

너의 모든 무기를 내려 놓아라, 그러면 나의 무기를 너에게 주마.

나의 무기는 담을 허물고, 문을 열어 줄 것이다,

상황을 역전시키며, 너를 향한 맹 공격을 소멸시킬 것이다.

너를 보호하고 안전케 할 것이다.

 너의 대적이 변하여 너의 옹호자가 되게 하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낼 것이다.

나의 무기는 강력하다. 이제 너의 전투는 나의 전투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의 파트너로 신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자신의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파트너입니다. 나의 필요는 곧 그분의 필요가 됩니다.

10. 이름의 교환

구약시대에는 이름이 모든 것을 대표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곧 여러분의 정체성이자, 평판이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대표하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또한 저는 당신의 이름이 대표하는

모든 것을 받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너와 맞바꾸겠다, 너의 이름을 다오, 그러면 내 이름을 너에게 주마"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불리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불리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며,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11. 새 언약이 세워진 장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류와 더불어 맺은 그 언약에 온 땅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 큰 언약일수록 더 많은 희생을 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보다 더 큰 희생제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네게 매였다. 우리가 혈약의 관계 안에서 동행하고,

네가 신뢰할 만한 근거와, 든든히 딛고 설 만큼 확고한 기초를 주기 위해서였다.

12.언약식

고전1124. 그리고 그분께서 감사를 드린 후에, 그분께서 그것을 갈라 나누시고, 이르시니라, 가져다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그것은 너희를 위해 부숴지느니라, 나를 기억하여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고전1125. 그분께서 저녁을 드신 후에, 같은 방식을 좇아, 그분께서 또한 잔을 취하시니라,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가운데의 새로운 성약(聖約, 디아데케:처분,계약,언약,유언/히브리어 베리트:고기에서 유래,고기 조각들 사이로 지나감으로 맺는 언약,계약: 창1510 참조)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기념)하여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혈약을 맺는 방식으로 혈약을 맺으심; 창1509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 대신 내가 싸운다.

우리가 하나님과 혈약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싸우신다.

그분의 것이 우리 것이고, 우리의 것이 그분의 것이 된다.

내가 네 이름을 가져가고, 내 이름을 네게 주겠다.

할례; 혈약에 인치는 것

◇하나님과 맺는 모든 관계의 토대는 혈약입니다.

나는 혈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레2642. 그때에는 내가 야곱과의 내 혈약과 또한 이삭과의 내 혈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며,  또한 아브라함과의 내 혈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니라.

◇기브온의 예

수0915.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과 맹약을 맺어, 그들로 살게 하니라. 그리고 회중의  수령들이 그들에게 맹세하니라.

삼하2101. 그때에 다윗의 날들에 삼년간 계속하여 흉작(기근)이 있어, 다윗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이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으니, 그것은 사울 때문이며, 피로 더러워진 그의 집 때문이니, 이는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였음이라.

삼하2102.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니라. (한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속하지 않았고, 아모리 사람들의 잔류자에 속했으며,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맹세했었느니라.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자녀들에 대한 그의 열심으로 그들을 학살하려고 모색했느니라)

삼하2103. 그러므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말하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랴?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의 계승물을 축복하도록, 내가 무엇으로 배상금(화합금)을 치르랴?

삼하2104. 이에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여쭈니라, 우리는 사울이나 그의 집에 속하는 아무런 은도 아무런 금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은 이스라엘에서 누구도 죽이지 마소서, 이에 그가 말하니라, 너희가 말하는 것, 그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할 것이니라.

삼하2105. 이에 그들이 왕에게 여쭈니라, 우리를 마셔버리고(소멸시키고), 이스라엘의 연안들 (영역들)의 어떤 곳에서도 남아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무너지도록 우리를 거슬러 고안했던 사람,

삼하2106. 그의 아들들의 일곱 남자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넘겨지게 하소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택하셨던 사울의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께 목매달겠나이다. 이에 왕이 말하니라, 내가 그들을 줄 것이니라.

◇출애굽기는 혈약의 책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혈약을 맺으시는 것이다.

출2406. 그리고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그것을 물동이(대야)들 안에 넣으니라. 그리고 피의 절반을 그가 제단 위에 뿌리니라.

출2407. 그리고 그가 혈약의 책을 취하여,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서 읽으니라, 이에 그들이 말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또 청종할 것이니이다.

출2408. 이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그것을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들 모든 말씀들에 관해 너희와 체결하신 혈약의 피를 보라.

출애굽기는 하라, 하지 말라의 책이 아니라,

혈약의 책이다.

기도는 그 혈약에서 출발한다

◇창0101의 호크마 주석:

여호와는 '혈약을 지키시는 분'을 뜻한다, 하나님(\*, 엘로힘). - 두려워하다'(\*, 알라) 혹은 '강하다'(\*, 울)란 뜻에서 파생된 말로 곧 '두려워해야 할 강하고 능력있는 자', '경외해야 할 최고 존재'란 의미이다. 여호와'란 명칭이 '언약을 지키시는 자', 택한 백성을 구속한 자'란 의미로 쓰였다면(출 6:3) 이 '엘로힘'이란 명칭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할 때 쓰였다

◆새로운 혈약의 예보

렘3131. 보라, 날들이 오느니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내가 그들의 손을 잡았던 날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혈약을 따르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그리고 유다의 집과 새로운 혈약을 맺을 날들이 오느니라.

렘3132.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 내 혈약을 그들이 파기했느니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렘3133.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혈약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 날들 이후에는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내부에 놓을 것이며, 그들의 마음들에 그것을 쓸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또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느니라.

◇새 혈약

마2628. 이는 이것은 새로운 성약(聖約)의 내 피이기 때문이니, 이 피는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많은 이들을 위해 흘려지느니라.

막1424.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이것은 새로운 성약(聖約)의 내 피니, 그것은 많은 이들을 위해 흘려지니라.

눅2220. 저녁식사 후에 마찬가지로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가운데의(내 피로 인치는) 새로운 성약(聖約)이니, 그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려지느니라.

고전1125. 그분께서 저녁을 드신 후에, 같은 방식을 좇아, 그분께서 또한 잔을 취하시니라,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가운데의 새로운 성약(聖約)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기념)하여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히0722. 그 정도로 예수는 더 좋은 성약(聖約)의 담보(보증)로 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covenant love)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구속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사회 안에 언약이라는 제도를 두시고,

하나님 자신께서 그 언약에 매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주님은 언약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가

"그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과, 온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이해하기 원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언약을 기초로 한 사랑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교환"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원하셨습니다.

즉, 언약 안에서 그들이 주님께 전적인 신뢰와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대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아무 제한 없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몸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혈약을 맺은 너를 위해 나를 100%로 포기한다.

너도 너를 전적으로 포기하라.

◇혈약은 상호간에 이뤄지는 "교환"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마, 대신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다오"

갈0502.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이를 말하노니 곧,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않느니라.

갈0615.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도 무할례도 어떤 것에도 쓸모가 없음이니, 다만 새로운 피조물이라.

Tags

혈약언약 은총은혜